



우리들의 이야기 미키라오스



풍송'by 캄라





보고서를 쓰자고 컴퓨터 앞에 앉으니 정말 귀찮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나, 누가 이 글을 볼까를 생각해 보았다.

아마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
또는 인생이 조금은 답답한 사람?



내 경우는 그랬다. 군대에서 할 일도 없었고, 전역하고 답도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에서 라온아띠를 접하게 되었다. 호기심도 쓸데없이 많았고. 그렇게 라오스 1기 2기 선배들의 화려한 보고서에 현혹되어 지원서를 쓰고 정신 차리니 라오스에 와있다.



그리고 또 정신 차리니 2개월 차, 풍송이란 마을에서 현지 사람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벼를 베다가 가끔 혼자 투덜댄다. 뭐 그렇게 좋지도 않네.



마을을 옮기게 되고, 처음엔 적응을 잘 못했었다. 어쩔 수 없이 전 마을, 전 가족, 전 친구들 모든 것과 비교를 하게 되었다. 한 달이라는 정을 무시하기도 힘들었고.

솔직히 전 마을이 좀 그리웠다. 그래서 몇 번 놀러 갔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냥 살다 보니 다 비슷해졌다.
또 적응하고. 새로운 가족들도 생기고. 편해지고.
아직까진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은 없지만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 마을처럼 맘 놓고 살기엔 상황이 많이 바뀌어 버렸다.
이 많은 학생들이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한국인 봉사자들이 거쳐 간 이 센터는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거쳐 갈 이 센터는 내가 간 후에도 똑같이 봉사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될까 봐 걱정된다기보단 신경을 건드리고 가끔 매우 매우 짜증이 나게 한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 어떠한 책임감이나 무게로부터 도피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귀찮음을 떠안게 되어 엄청 귀찮다. 역시 맘 편히 5개월 즐기고 오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벌을 받나 보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와 고민과도 함께 산다는 것을 느낀다. 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고민을 하는 내 머리만은 바쁘게 지내고 있다. (몸은 아직)

윤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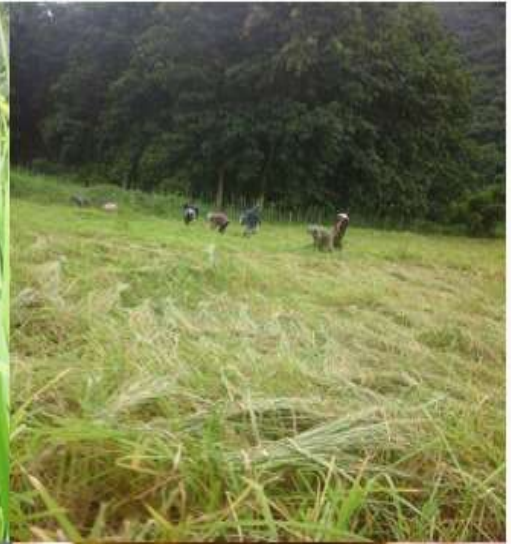
푸딘댕



본격 농사시작

이번 달은 매일 농장에 갔다. 먼저 벼 수확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빨라서 품앗이에도 다녀왔다.

나는 풀 독에 상당히 민감한 피부를 지니고 있어서 저녁마다 두드러기가 올라온다. 끼얹이 매일 약을 발라주면서 여러 번 다니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농장 출근 3주 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감사 인사

푸딩댁은 여러 위험 요소가 많은 마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은 가족들, 친구들, 우리 마을 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입성 한 달을 기념하여 마을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라오어로 짤은 편지를 쓰고, 돼지고기 감자볶음을 만들어 마을 곳곳에 돌렸다.



빈곤 퇴치 캠페인

푸딘댕, 폰숭, 나케 마을에 고등학생 친구들이 왔다. 우리 마을에서는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쓰레기 줍기, 나무 심기 등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는 간단한 통역과 함께 라오 문화 및 푸딘댕 마을에 대해 소개하는 역할을 맡아 마을 아이들에게 왜 환경정화 활동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고등학생 친구들의 라오 생활 적응을 도왔다.



일상

바쁘다. 정말 바쁘다.

농사를 하고, 여러 종류의 수업을
진행한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친구들의
학교 공부를 돕기도 한다. 남은
시간에는 라오스 요리를 배우러 간다.
매달 15일에는 농장 대신 절에 가서
가족의 안녕을 기원한다. 가끔 바시에도
불러가고, 소소한 식사 초대도 잦다. 내
일상을 자세히 다 적기에는 보고서의
용량이 제한적이다.



가끔 팀원들과 라오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파견됐다가 모인 게 아닌지 의문이다.
각 민족의 문화가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민족 가정이라든가 각 가정의 분위기가 모두 다 다르다.
‘이게 라오 문화다, 이게 크무 문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오스와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가정, 내 주변의 라오스인들만 비슷한 건지 전체적인 라오 문화가 이런 건지는 모르겠다.
여기 친구들이 설명해주는 라오 문화도 다 다르다. 각자가 살아온 삶이 다 다르다.
인간이 보는 모든 것은 착시, 그래서 완벽히 객관적인 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다.



가족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다.
때로는 지나친 관심이 잔소리로 느껴지는데, 그게 다 애정에 기반을 둔 걱정이라는 걸 알기에 감사하기도 하다.
특히 비자 트립을 오면 그 정도가 심해져 팀원들이 서운해질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온다.
미안함과 고마움은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꽤나 무리하고 있다.

둘째 오빠는 항상 내 안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물만큼만 담으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웬지 내가 더 많은 물을 담으려 하면 할수록
내 안의 그릇이 자꾸 커져가는 것만 같다.





캄퐁의 위앙싸마이



RaonAtti 친구소개_1



리카

- 따담의 동생
- 한국어를 할줄 안다.
- 꿈의 친한 친구
- 친절하고 의리 있는 친구
- 가끔씩 축구를 같이 한다.



나이

- 꿈의 가장 친한 친구
(캄폰의 가장 친한 친구)
- 친절하고 의리 있는 친구
- 영어를 잘함
- 가끔씩 축구를 같이 한다.



캄팽

- 유스센터에서 영어를 배워 영어가 수준급이다.
- 친절하고 의리 있는 친구
- 캣과 함께 군대 갈 예정
- 배려 있고 마을에서도 착하기로 소문 난 친구



따담

- 푸딩댄 슈퍼스타
- 요리를 해서 가져다줌
- 착하고 의리 있는 친구



따노이

- 나케에 사는 여신(라오 친구들은 따노이에게 '블리아', '응암' 예쁘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 아이들을 사랑하는 친구



캄라

- 훈숭에 사는 청년(나케에서 훈숭으로 이사감)
- 눈물이 없는 청년인줄 알았는데 눈물이 많다.
- 생각이 많은 친구다.

RaonAtti 텃밭 가꾸기



- 우분과 계분을 이용해 비료 없이 유기농 텃밭을 가꾸었다. 매일 하루 두 번 물을 주는 게 일이 되었지만 채소가 다 자라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그날을 생각하며 채소를 키워가고 있다. (닭과 채소를 먹는 벌레들을 퇴치하는 일도)

RaomAtti 사진 (추억남기기)



- **켓(군대 예정), 아사(대학교 예정)이 언제 떠날지 모르기에 깨오를 집으로 불러 가족사진을 찍었다. (가족사진 한 장 없기에 마음이 아팠는데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 위성방송이 가능하여 태국 방송을 통해 영화, 드라마를 볼 수 있지만 여러 영화를 동생들과 보았다.

(태국, 라오 자막이 없어서 완전한 이해를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해도하고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즐거웠었다.)



- 꿈이 노래를 잘하여 Aiy bor man pha in이라는 노래를 가끔씩 배우고 있다. (발성 자체가 틀려 발음하기 어렵지만 수확철이 될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하며 노래를 부를 생각이다.)

RaomAtti 왓(절)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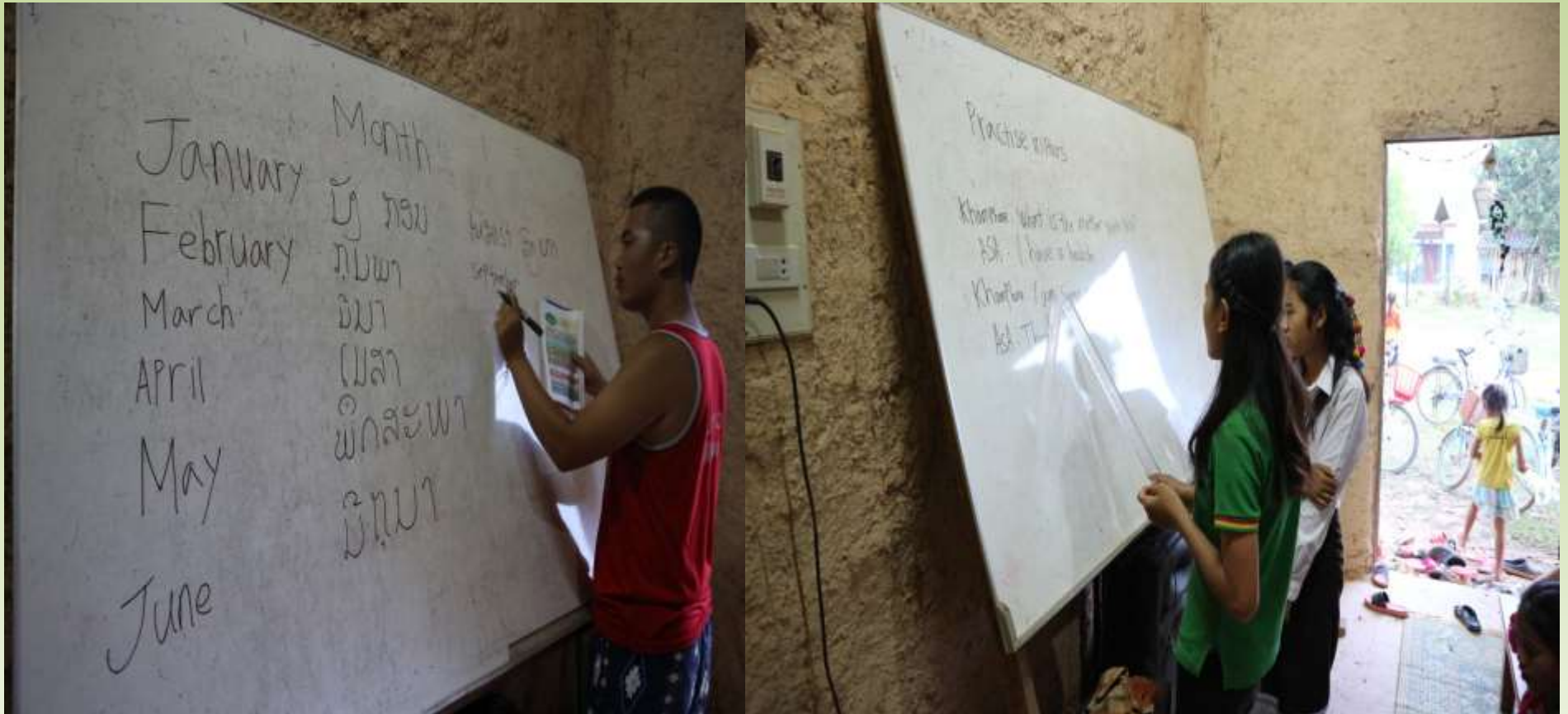


- 동생들과 마을 친구들이 함께 왓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빅문이 되면 왓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

RaomAtti 바시행사



- 친척과 친구들이 집에 방문하여 떠나는 아사와 캣을 염원하고 음식과 술을 통해 좋은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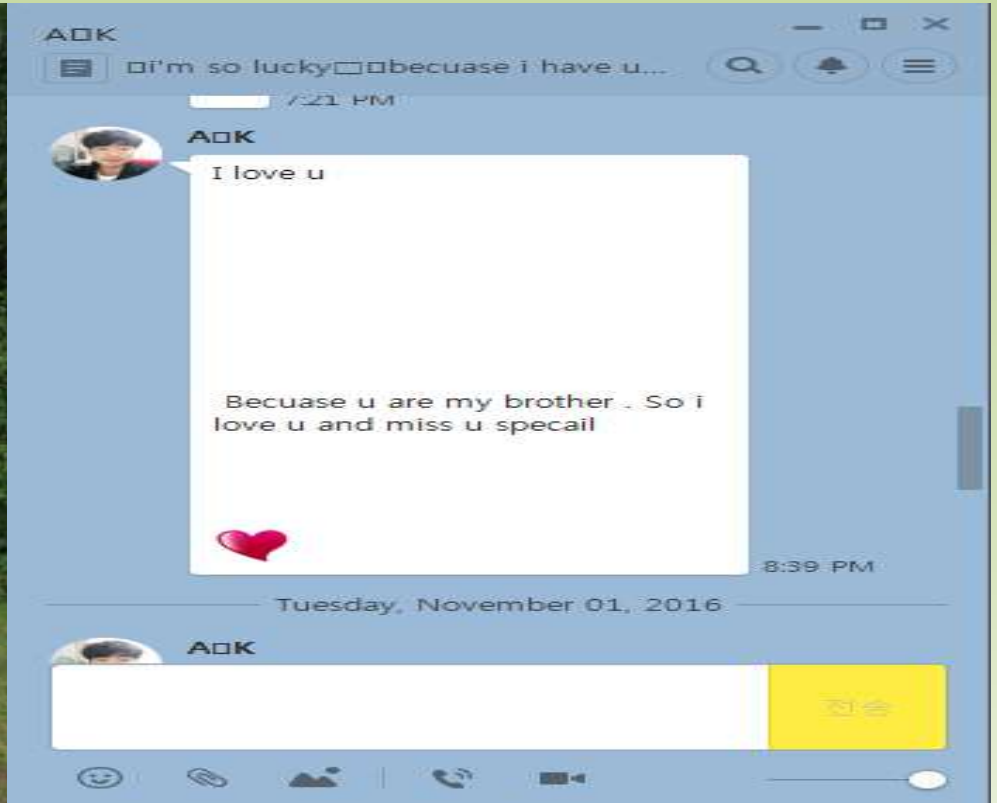
- 연령대가 다양한 학생들이 센터에 영어교육을 받으러 와서 이해 못한 친구들 위주로 한번 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아사가 대학교에 가기 때문에 마니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RaomAtti 한국 요리 공유하기



- 서툰 요리지만 한국 음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내 마음을 가족들에게 전하였다. (마니에게 라오스 요리를 배울 예정이고, 기회가 될때 다른 한국 음식을 배워 시도해볼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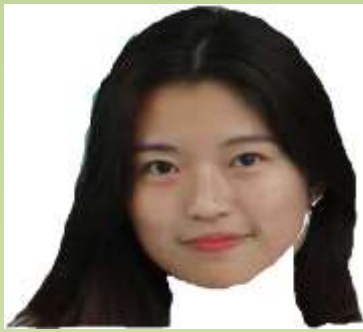
RaonAtti 캠프의 생각_1



- 정들었던 아사가 진로를 위해 집을 떠났다. 점차 동생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 이해되는 부분도 커졌었고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을 위해 떠났기에 잘 된 것 같기도 하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캣에게도 좀 더 신경 쓰고 추억을 쌓으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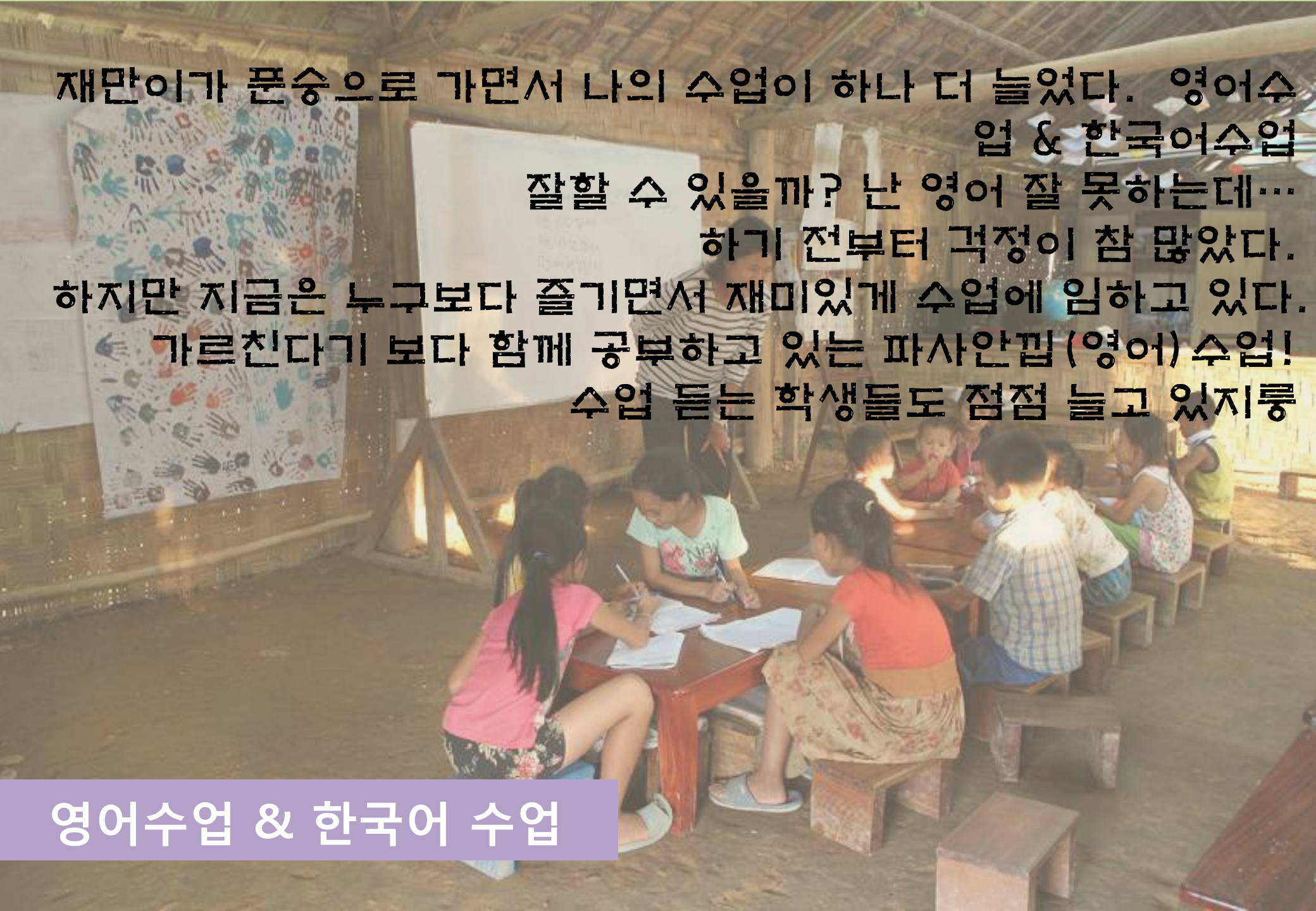
- 돈이 행복의 기준에 있어서 다가 아니라는 말에 있어 라오스 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바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며 내가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게끔 한다. 물론 내면에는 돈으로 인해 여러 장벽에 많이 부딪히지만 어디까지나 일부분일 뿐 돈이 삶에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 것 같다.



따노이 의 마을

나카에





재만이가 폰숭으로 가면서 나의 수업이 하나 더 늘었다. 영어수업 & 한국어수업
잘할 수 있을까? 난 영어 잘 못하는데...
하기 전부터 걱정이 참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즐기면서 재미있게 수업에 임하고 있다.
가르친다기 보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파사안깍(영어)수업!
수업 듣는 학생들도 점점 늘고 있지롱

영어수업 & 한국어 수업

다짐

“닝!!” “핑!!”

우리 집에서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를 때면 애들은 군말 말고 일어나 엄마가 시키는 일을 바로 바로 한다. 이제 고작 11살, 9살인 슈퍼베이비인데 말이다.

한국에서의 난..

“다희야 이거 해라”

“어”

성의 없이 대답한 채 꿈쩍도 안한다. 엄마가 머라 하시면 나중에 다 할건데 왜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나중에라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집안일 열심히 돕겠다고, 엄마 말 잘 듣겠다고 다짐해 본다.

-엄마가 매우 보고 싶은 밤-

이번 달 부터 우리 집도 농사 일이 시작되었다.

동화간사님께 전화를 해 볼까.. 조기 귀국 하면 어떻게 될까 ..
벼를 베면서 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갔다.....

힘들었다 정말...정말...정말..

다들 이야기하면서 웃음꽃 피울 때 나 혼자 묵묵히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는
게...

손과 발이.. 벼에 베여서 피가 나고.. 거칠어 짐이 느껴 지는 게...
햇빛에 얼굴이 그을려 너무 화끈 거리는 게..

너무 싫었다.

그래도 지금은 그래.. 난 이 집 가족이니까... 마음을 다 잡고 있다.

아.. 이제 절대 안 할 란다.. 수백 번 생각했지만
이 보고서를 끝내고 돌아가면 다시 난 벼를 베고 있겠지..하핫

I hate 농사

'동서남북' 다시 엇갈려 나아 가겠지만



우리가 만난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자.